

5/16(월) 느헤미야 1-4장 모든 순간에, 기도

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<성전>을 건축하게 하시고(스6:14-16),
에스라를 중심으로 <율법>을 통한 영적 개혁을 하게 하셨습니다(스9-10장).
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<성벽>을 재건하게 하십니다.

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(1:6,11, 5:19, 6:9,14, 13:14,22,31).
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(1:6-8).
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(1:3-4).
페르시아 고위직으로 입신하게 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며,
민음의 형제들과 함께 중보했습니다(1:11).

4개월가량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.
낮빛조차 <반역>으로 오인될 수 있는 왕궁 분위기에서(2:1-2),
<반역>을 사유로 중단된 사안을 재개하도록 요청하는 일(스4:19),
그것도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을 번복하게 하는 일은(스4:23)
느헤미야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.

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(2:4).
그 간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을 담대히 요청했을 때,
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좋게 여겨 응하게 하셨습니다(2:4-9).
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만에 현장을 파악하고
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즉각 돌입합니다(2:11-18).

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.
남녀노소, 빈부귀천을 떠나 가족별, 지역별, 직업별, 개인별로
집 앞 작은 부분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(3장, 4:6).
그러나 안팎의 방해와 소란으로 인해 공동체는 곧 어려움에 처합니다(4장).

나는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합니까?

- ① 준비 - 진행과정 -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합니까?
- ② 중재자로서, 중보자로서 공동체와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느헤미야 1-4장